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39 “우리도 뛴다”

광주시 생활체육협의회 임직원들이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서 선전을 다짐하며 힘차게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주 3일, 하루 30분 운동을 ‘7330’ 캠페인 펼칩니다”

■ 광주시생활체육협의회

“시민들과 호흡하며 일주일에 3번이상, 하루 30분 운동하자는 광주시생체협의 ‘7330 운동’ 캠페인을 알리며 뛰겠습니다.”

광주시민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광주시생활체육협의회(이하 생체협·회장 오 주) 직원들의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출전 각오다.

광주시 생체협은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들의 생활체육을 돕고, 노인들의 건강을 챙기는 등 광주시민들의 가장 가까이서 체육활동을 돕고 있다.

지난해 생체협은 처음으로 화천기공사로부터 전액 후원을 받아 ‘화천기공사장배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했고, 광주거주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등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올 해는 주부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월께 ‘시장배 어머니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 배구, 댄스스포츠 등 5종목을 통해 어머니들의 화합과 건강을 다지는 행사를 열 계획이다.

6월 시장배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개최

오 주 회장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라는 격언이 있듯이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 이번 대회를 통해 마라톤 등 생활체육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생체협은 임직원들이 모두 체육전공자로 마라톤에 대한 욕심이 남다르다. 오 주 회장은 평소 만보걷기 운동을 생활화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등산을 통해 생활체육을 실천하고 있어 5㎞ 완주는 물론 입상도 가능할 정도다.

이여성 사무처장은 태권도로 다져진 지구력과 골프 등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 얻은 체력을 보여줄 계획이다. 강필오, 곽상복 팀장도 그동안 틈틈이 다져온 체력을 공인 받겠다며 하루도 쉬지 않고 점심시간을 통해 달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전직원 스포츠전문가…오주 회장 5㎞ 도전

사업팀 노창완 주임은 대회에 참가해 우승하는 꿈까지 꿔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후보로 직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손남희 홍보팀장, 서무 고은애 주임, 소외계층 지도담당 김미경 씨, 박춘미 씨, 노인지도자 박영아 씨, 전일제 지도사 김소연 실장 등 여직원들 역시 생체협의 명예를 걸고 완주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특히 김소연 실장과 박영아·박춘미·김미경 씨 등은 사회체육학과 출신으로 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반드시 10위 안으로 골인하겠다고 훈련 강도를 높이고 있다.

오 주 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달리기야 말로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생활체육임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AHF “한·일 핸드볼 재경기땐 제명”

〈아시아핸드볼연맹〉

양국 협회 “제명 쉽지 않아…대응책 있다”

베이징올림픽 남녀 핸드볼 아시아 예선 재경기가 29~30일 도쿄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아시아핸드볼연맹(AHF)이 한국과 일본의 회원 자격을 박탈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와 양국 협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일본 스포츠전문지들은 22일 일본핸드볼협회 관계자를 인용해 “아시아연맹이 이번 재경기에 출전하는 한국과 일본을 제명시키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대한핸드볼협회에는 이 공문이 오지 않았는데, 일본의 경우 와타나베 요시히로 회장이 AHF 부회장을 맡고 있어 이사 자격이 있지만 한국은 AHF 이사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협회는 보고 있다.

AHF가 한국과 일본에 중징계를 내리는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일.

아시아연맹은 재경기 개최 이틀 전인 27일 쿠웨이트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겠다고 각 이사국에 통보했다.

이번 긴급이사회에서 논의될 주요한 사항은 AHF의 재경기 출전 및 개최 금지를 어긴 한국과 일본에 대한 징계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최고 징계가 내려질 경우 제명까지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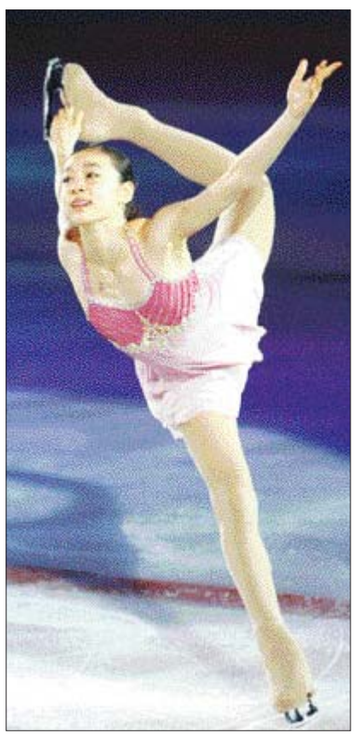
그러나 대한핸드볼협회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다. 자존심이 땅에 떨어진 AHF의 반발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고, 재경기가 AHF보다 상위 기구인 국제핸드볼연맹(IHF)의 결정 사항이기 때문이다.

협회는 또 제명이 쉽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설사 제명이 되더라도 대비책을 갖고 있다.

정규오 협회 국제팀장은 “이번 재경기는 한국과 일본의 공동 노력으로 AHF에 반기를 들며 이뤄낸 것이기 때문에 제명까지 충분히 각오하고 있었다. AHF가 마지막까지 재경기를 막아보려 애를 쓰는 것 같다. 하지만 IHF가 주관하는 대회여서 AHF도 힘을 쓰지는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김연아 내달 동계체전 출전 안한다



4대륙 피겨선수권만 참가

김연아(18·군포 수리고·사진)가 내달 예정된 전국동계체전(2월19~21일) 출전을 포기하고 200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 피겨선수권대회(2월11~17일·고양)에만 참가한다.

김연아의 매니지먼트사인 IB스포츠(대표 이희진)는 22일 “김연아가 내달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리는 4대륙 선수권대회와 동계체전 참가 여부를 놓고 고민해왔다”며 “두 대회를 모두 나서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세계선수권대회(3월·스웨덴) 준비를 위해 4대륙 대회만 나서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IB스포츠는 “김연아가 4대륙 대회와 연이어 열리는 동계체전을 모두 소화하고 전지훈련 장소인 캐나다 토론토로 돌아갈 경우 컨디션 회복과 시차적응에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럴 경우 실제로 세계선수권대회를 준비할 기간이 보름도 남지 않아서 1개 대회만 참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IB스포츠는 이어 “김연아에게 세계선수권대회가 이번 시즌 가장 큰 대회여서 준비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 4대륙 대회만 출전하기로 결정했다”며 “고심 끝에 어렵게 내린 결정인 만큼 경기도 체육회와 수리고 관계자들의 이해와 배려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한빙상경기연맹은 4대륙 대회 참가신청 마지막날인 22일 국제빙상경기연맹(ISU)에 김연아를 비롯해 김나영(18·연수여고)과 김채화(20·간사이대), 이동훈(21·삼육대) 등 4명의 명단을 제출할 예정이다.

표도르-쉴트 재대결 추진

‘얼음 황제’ 표도르 에멜리아넨코(32·러시아)와 K-1 최강자 세미 쉴트(35·네덜란드)의 재대결이 추진된다.

북미 격투기 웹진 ‘셔독’은 22일(한국시간) “표도르의 유력한 대결 상대로 K-1 챔피언 쉴트가 거론되고 있다”면서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쉴트가 2월 두 번째 주말 모스크바로 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표도르는 2002년 6월 프라이드 대회에서 쉴트와 처음으로 맞붙어 심판 전원일치로 판정승을 거둔 바 있다.

둘의 재대결 장소로는 쉴트 국적인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이 최적지로 거론되고 있다.

2005년부터 입식 타격대회인 K-1 월드그랑프리에서 3연패를 달성한 쉴트는 지난 12일에는 그라운드 기술을 허용하는 종합격투기(MMA) 대회에도 출전, 1라운드 KO로 승리하는 등 최근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MMA 통산 전적은 25승1무14패.

쉴트 이외에 페드로 히조(34.브라질)와 제프 몬슨(37·미국), 벤 루스웰(27·미국) 등이 표도르의 맞대결 상대 후보로 손꼽히고 있다.

스포츠중계

23일 (수)

▲여자프로농구 〈신한은행 : 삼성생명〉(16 : 50·SBS 스포츠)

▲프로농구 〈LG : 전자랜드〉(18 : 50·SBS스포츠), 〈삼성 : 동부〉(18 : 50·X-PORTS)

▲2008 호주오픈 테니스 8강전(17 : 30·MBC ESPN)

▲V리그 여자부〈도로공사 : 흥국생명〉(16 : 30), 〈KT&G : GS칼텍스〉(19 : 00·KBS N SPORTS)